

신기산업, 신형프러그 개발, 판매 박차



▲ 신기산업이 개발한 신형 프러그

신기산업(대표 최재진)이 신형 프러그를 개발하고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09-0029228호)에 이어 본격 시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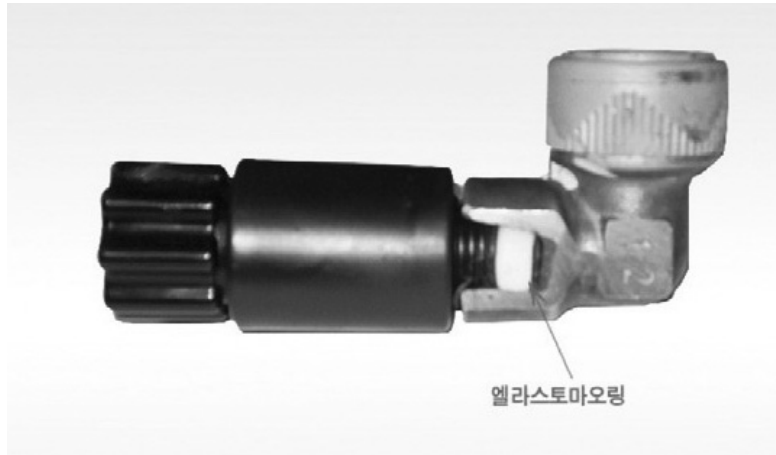
신형프러그는 프러그 몸체를 삽입한 뒤 조정핸들을 이용하여 조여주면 오링이 팽창하여 나사산을 완벽하게 채워줌으로써 누수를 차단하여 준다. 따라서 마감 씰링재인 테프론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한번의 작업으로 간편하게 시공된다.

중전의 프러그와 달리 수압이 8~10kg 정도(수압이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에서 핀과 오링이 밀리면서 압축되어 누수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신형 프러그의 완벽한 누수차단은 오링에 있다. 오링이 끝부위에 부착되어 있어 프러그를 삽입하면 오링이 압축되면서 팽창하여 누수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 또한 오링은 탄성이 강한 엘라스토마(탄성중합체)이며, 국제 음용수 이용 규격품이다.

특히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프러그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핸들만 풀어주면 자동으로 물이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핸들을 조절함으로써 공기제거도 가능하다.

3단계 조립과정으로 쉽게 조립할 수 있어 비숙련공도 시공이 가능하며, 특히 무용접 시공으로 용접불꽃으로



▲ 신형 프러그의 완벽한 누수차단은 탄성이 강한 엘라스토마 오링이 팽창하면서 나사산을 채워줌으로써 누수를 차단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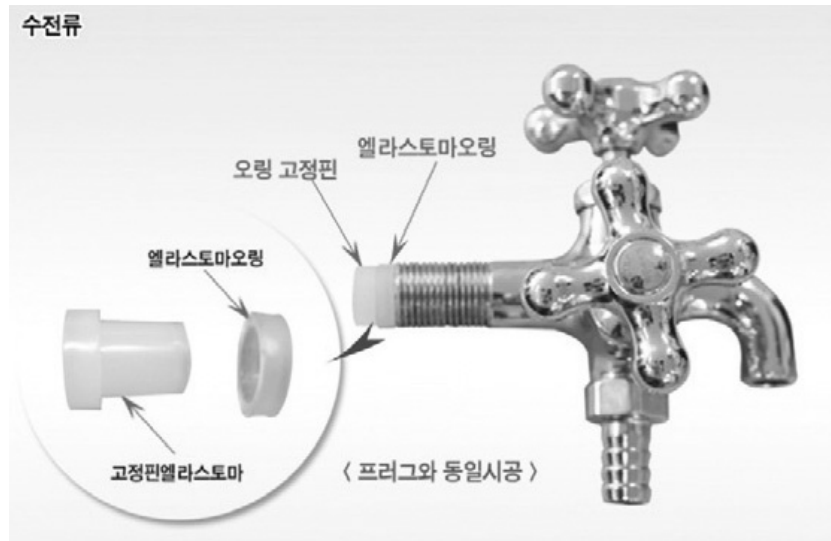
인한 화재발생의 우려를 없앴다.

신형프러그는 스프링클러용과 급수·급탕용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화된 제품이 공급된다.

신기산업의 최재진 대표는 현장에서 25년 동안 설비소장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 대부분의 기계설비 하자발생이 누수였던 점에서 누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자 노력한 결과 신형프러그가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신형프러그가 개발되었고, 특허출원까지 획득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 해운대 현장 등 국내 유수의 현장에 20만개 이상이 배포되어 테스트를 거쳤고,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 수전금구류에 쓰여지는 엘라스토마 오링(테프론테이프를 감지 않아도 누수가 차단됨)